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고 내 (yangja3322@hanmail.net)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 20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호스피스가 활동을 해온지 만20년이지나 수백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다시 한 번 조명해보았다. 1988년 주님의교회를 시작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1993년 교회 사역중에 호스피스 팀을 만드시고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팀이 출발되었다. 제목만 들어도 겁나고 두려운 사역에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기도로 계획하신 사역이기에 1994년에 호스피스 사역에 함께할 10명이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것으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었다.

호스피스란 이름은 아니었지만 1988년부터 한양대병원 수요 환자예배에 찬양팀을 만들어 20명정도가 한 달에 한번 찬양봉사를 하다 예배에 오신 환자들을 만나 그분들의 병실까지 찾아가 필요한 도움도 드리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보고는 외면할 수 없어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협력해 도움을 드리기도 하며 지방에서 올라와 환자가 남긴 식사로 끼니를 때우며 힘들게 간호하시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밥과 밑반찬도 계속 전해드렸고 항암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까지는 아니지만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드리며 차량봉사도 했던 모든 것들이 교육을 받고 보니 우리들의 행함이 호스피스 사역임을 알고 내심 감사하였다. 교육을 받고 바로 시작한 서울대병원과 원자력병원 소아암병동의 어린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일년에 봄기를 두 번씩 호스피스 교육에 10여명씩 동참시키며 활동을 넓혀갔다.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고 집에 가있으면 집으로 찾아가 돌보기도 하며 어려운 경제적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협력하는 일은 필수가 되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가 하는 일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호스피스 교육에 힘쓰다.

- ① 1994년부터 매년 봄· 가을 무지개 호스피스교육에 10명이상 참여하고 교육비도 후원하다.
- ② 기본교육을 받고 봉사에 참여하면서 심화교육과 계속교육으로 봉사자들의 자신감과 질 높은 봉사자로 성장해나감(발마사지, 림프마사지, 아로마마사지, 경락마사지, 에니 어그램, 원예요법, 음악요법, 심리상담, 이혈요법, 미술치료, 치매환자 돌보기 등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많은 교육을 계속함)
- ③ 이미용 봉사교육으로 필요시 머리손질도 할 수 있도록 소수가 교육받다.
- ④ 일본의 하세가와 노리코 박사의 "말기암의 통증을 다스리는 아로마테라피" 특강 교육참여



2. 병원봉사현장을 발굴, 많은 곳에 폭넓은 봉사에 힘쓰다.

한양대서울병원, 서울대 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한일병원, 서울의료원(구강남시립병원), 보라매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산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경찰병원, 기쁨병원 등 암환자가 있는 곳이면 호스피스의 장으로 개척하며 봉사자들이 쉽지 않은 봉사를 계속하였다.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3. 신체적 돌봄

발마사지, 등마사지, 림프마사지를 오랜 교육과 수시로 외부강사를 모셔 전문가 수준의 아로마 마사지로 계속 환자들을 섬김.



4. 사회적 돌봄

주님의교회 기본정신이 우리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 헌금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쓰기에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돌보던 어려운 환자를 돕는일에도 교회와 봉사자들의 사랑이 협력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5. 영적돌봄

예수님의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임을 알기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호스피스 정신을 기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었던 천국열매의 환희와 기쁨 때문에 모든 봉사자는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병상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성경책을 선물해드리고, 축하 케익과 꽃바구니로 축하해 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눈다.



6. 호스피스봉사를 국내 오지 농어촌 교회와 해외에서 배우고 실천한다.

- ① 127년전 지구 동쪽 아주 작은 땅 조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끝이라 여기고 수개월을 큰 파도와 싸우며 이 땅을 밟으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생각해봅니다.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더럽고,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민족이라며 울면서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느냐고 하나님앞에 울부짖던 그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를 세워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셨고 병원을 세워 이 민족을 사랑하셨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민족의 복음에 성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농어촌 선교팀과 함께 찾아가 이미용팀과 호스피스 사역을 의료팀과 동행하며 필요한 봉사를 계속하려합니다. 5월에는 장성에서 3개면 60여분의 지역 노인들을 섬겼으며, 11월에는 함양으로 찾아갑니다.
- ② 일본호스피스기관 시설방문(기누가사병원,성요셉호스피스병원,사쿠라병원)과, 대만호스피스(카우슝 성요셉호스피스병원 등) 시설방문, 몽골 호스피스(울란바트로 그린홈 호스피스, 홈케어) 시설방문, 제주 이시돌 호스피스시설 방문 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실천합니다.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7. 봉사자들의 소진예방과 스트레스관리

- ① 매월 마지막 토요일 월례회 및 기도회로 서로의 현장소식과 계획들을 나누고 세우며 봉사자들과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다.
- ② 봉사자들의 힘든사역에서 소진예방을 위해 봄, 가을 연2회 물 좋고 산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며 서로를 격려 지지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8. 가정호스피스 활동

- ① 병원, 시설에서 섬기던 환자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일 때 자연스럽게 가정방문으로 이어진다.
- ② 가정에 계신 환우분이 돌봄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섬김으로 도움을 드린다.



1993년부터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대외봉사활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 쉽지 않은 봉사 현장에서 힘든 만큼 기쁨 또한 컸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비량으로 많은 교우들이 함께 걸어온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봉사하시는 교우도, 현장도 줄어든 것이 현실이지만 늘 하나님은 필요한곳에 필요한 만큼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부르시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달려갈 준비된 정의부대가 든든히 버티며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만 2년째 20여명이 춘천호스피스에서 월요일마다 먼 길 마다않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새로운 호스피스시설봉사의 한 모퉁이 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가 말로 하나님 사역에 제일가는 사역이라 체험하면서 이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의 가는 길 멈추지도 쉬지도 않게 몸과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춘천호스피스 봉사하는 분이 쓴 글을 참고로 올립니다.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이야기

아침 8시에 출발하여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봉사자와 상봉역에서 함께 만나 9시 15분 경춘선전철 안에서 한 주간의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면 춘천 호스피스 병원에 10시 20분에 도착한다. 함께한 모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그리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기에 견딜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있어 발걸음조차 가볍다.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매주 월요일에 가는 호스피스 봉사 우리가 늘 환자를 만져주는 아로마 맛사지 향기처럼 봉사자들 마음은 달콤하고 아련한 사랑의 냄새가 난다.

원창고개를 넘어 도착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더욱 파랗게 보인다.

부지런히 오전 예배를 드리고 환우 분들 손을 붙잡고 기도를 드린다.

“남은 시간 하늘나라 바라보는 삶과 그 사랑 듬뿍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한 여름 밤이다. 무척 심한 습기 때문에 아가들의 뽀송뽀송함이 그리워진다. 낮에 춘천 호스피스에서 아로마 맛사지를 해드린 환자분의 손이 참 부드러웠다. 아프지 않았을 때에 그 손도 '무척 뽀송뽀송 하였을 텐데' 하는 생각에 스킨 크림에 섞어 아로마를 발라드리며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가 쓴 "꾸뻬씨의 행복여행"이란 책을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첫번째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데, 앞에 누워 계신 환자분 결코 “남과 비교(比較) 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잔뜩 잠겨있겠지.

‘왜? 내가.’

‘하필, 내가’ 하는 생각이.

벌써 7월도 다 가고 있다. 유난히 더운 날씨와 무더운 습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고운 심성으로 함께 하는 봉사자들 늘 보던 이들은 정겨워서 반갑고 새로이 오신 환자들은 할 수 있는 때까지 계속 봉사를 해드리려고 마음은 먹지만 또 어떤 삶의 다른 시간이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헤아릴 수 없는 아련함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나눔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고 은혜이다.

홀로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외로움을 안은 채로 고독이 억울해 눈물을 흘리다 마지막에는 넉넉한 미소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과 아픔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다. 세상사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우리들 작은 사랑이 우리를 주위에 있기에 견딜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생기는 것 같다.

남은 시간 행복한 삶과 사랑이 듬뿍 넘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 넘치는 그 시간 그래서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 같다. 그래서 봉사자들과 함께 한 시간 시간들이 늘 고맙고 행복하다.

달빛이 하얀 밤 느티나무아래 병원 정원에서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면 얼마 남지 않은 가슴 안으로 달빛을 이끌 만한 사랑과 이 세상에서 느꼈던 그동안의 감흥들 눈을 감고 그 시간들을 상상해본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은 50여명의 봉사자들이 여러 병원과 가정호스피스와 여러 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토요일 담당목사님과 월례회와 더불어 기도회를 가지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9월 22일 9월 월례회를 가졌으며 함께 기도를 드렸다. 주님, 기쁘고 가슴 뿌듯한 가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우리들의 이 가을. 가을을 느끼고 즐기기에 너무 복받은 날씨입니다. 풀밭에 마냥 굴러도 좋은 근사한 하루 에너지 충전하여 순간의 멈춤도 없이 기쁜 가을 하늘이지만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어드리는 귀한 사역자들 한분 한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육신으로 지지치 않게 하여주시고 가정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우리들 기도 후원으로 육신의 아픔이 영적인 어려움 되지 않게 하여주시고 육신의 고통 상하지 않기를 작은 자들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리며 어려움, 한걸음 한걸음 넘어가기를 의술로 어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아 주기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반석(磐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